

MARVEL



마블과 DC의 슈퍼히어로들,

어떻게 구분할까?



마블 코믹스의 대표작 '어벤져스'(위)와 DC 코믹스의 영웅들이 맹활약하는 영화 '저스티스 리그'(아래)



아는 사람은 한 없이 잘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헛갈리는 세계. 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이하 MCU)와 DC 확장 유니버스(이하 DCEU) 영화들이 그렇다. 글 임수연 씨네21 기자(imsy@cine21.com)



최근 개봉한 '원더우먼'의 다이애나(원더우먼, 갤 가돗)는 곧 브루스 웨인(배트맨, 벤 애플렉)과 함께 '저스티스 리그'에 출연하고, 7월 5일 개봉하는 '스파이더맨:홈커밍'의 피터 파커(스파이더맨, 톰 홀랜드)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에 등장하지만, 두 세계는 겹치지 않는다. 이들 슈퍼히어로에 대해 해박한 지식 없이도 엄청난 규모의 액션 신을 자랑하는 각각의 영화에서 어느 정도 재미를 느끼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독립된 작품들이 서로 맞물리며 세계관을 확장해가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추세를 볼 때, 이 세계에 대해 잘 알수록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전히 '마블'과 'DC'가 무엇인지 헛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여섯 가지 궁금증에 대한 해설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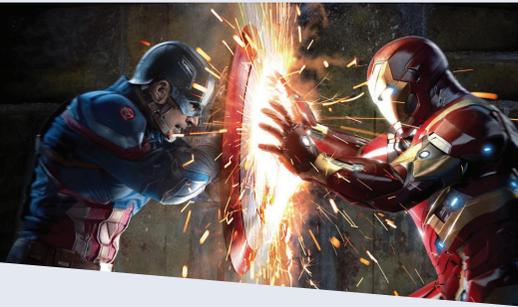
1 마블 vs DC

토니 스타크(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스티브 로저스(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브루스 배너(헐크, 마크 러팔로), 토르(크리스 햄스워스), 나타샤 로마노프(블랙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로키(톰 히들스턴) 등 '어벤져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마블 코믹스, 클락 켄트(슈퍼맨, 헨리 카빌), 배트맨, 원더우먼 등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 나온 캐릭터들과 플로이드 로턴(데드샷, 윌 스미스), 조커(자레드 레토), 할린 퀸젤(할리퀸, 마고 로비) 등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오는 악당들이 DC 코믹스에 뿌리를 둔다고 외우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다만 마블 코믹스의 원작 영화를 주로 만드는 마블 스튜디오가 과거 재정난에 시달리던 시절 다른 스튜디오에 판권을 넘긴 까닭에 여러 제작사에 캐릭터 사용 권한이 분산돼 있다

는 것만 감안하면 된다. 마블 코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슈퍼히어로였던 스파이더맨의 경우 그동안 판권이 마블 스튜디오가 아닌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에 있어 '어벤져스' 시리즈에 합류하지 못하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 독자적인 시리즈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소니와 디즈니의 파트너십이 체결된 이후 스파이더맨은 어벤져스 군단에 합류했고,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아이언맨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됐다. 데드풀이나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울버린, 미스틱 등의 캐릭터 사용 권한은 20세기폭스가 갖고 있다. 퀵 실버는 디즈니와 20세기폭스가 공동 사용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모두 등장한다.

2 마블과 DC의 영웅들은 어떻게 다른가?

만약 원작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영화를 봐도 마블과 DC 캐릭터들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조금은 다른 두 코믹스의 분위기 차이 때문일 것이다. 역사가 더 오래 된 곳은 원더우먼, 배트맨, 슈퍼맨 등이 포진한 DC 코믹스다. 이들 캐릭터는 1·2차 세계대전 혹은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전쟁이나 사회 정의와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편이다. 반면 마블 코믹스의 영웅들은 때때로 심각한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쉬지 않고 떠드는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로부터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 유머러스함을 갖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단점도 더 인간적이다. 똑같은 부자지만 정의를 위해 고뇌하는 배트맨과 달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왼쪽)'와 DC의 '배트맨 대 슈퍼맨'

리 아이언맨은 성격적 결함이 많은 것으로 묘사된다.

마블과 DC가 각각의 유니버스를 확장해가는 방식도 조금 다르다. MCU의 경우 '아이언맨', '인크레더블 헐크', '토르: 천둥의 신', '퍼스트 어벤저' 등 슈퍼히어로 단독 무비들이 먼저 개봉한 후 2012년 개봉했던 '어벤져스'에서 이들이 만나 세계관을 확장하는 구조였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의 예로 알 수 있듯 단독 무비가 사실상 '어벤져스' 시리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면 '어벤져스'의 기록적인 흥행 이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DCEU의 경우 '맨 오브 스틸',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수어사이드 스쿼드', '원더우먼' 총 4편으로 아직 편수가 적고, MCU처럼 단독 영화가 많지도 않다.

3 마블이나 DC 영화를 보기 위해 반드시 원작을 알아야 할까?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믹스를 알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체로 캐릭터 설정이 원작과 매우 닮아있는 데다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처럼 주요 코믹스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작품도 있고, 원작 팬들이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영화 속에 포함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스파이더맨이 슈퍼히어로로서 각성하게 된 것이 삼촌의 죽음과 연관돼 있다거나, 원더우먼이 오직 여성만이 살고 있는 섬의 공주였고 인간이 아닌 신이라는 설정은 원작과 똑같다. 내년엔 개봉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는 코믹스의 팬이라면 이미 '어벤져스'에서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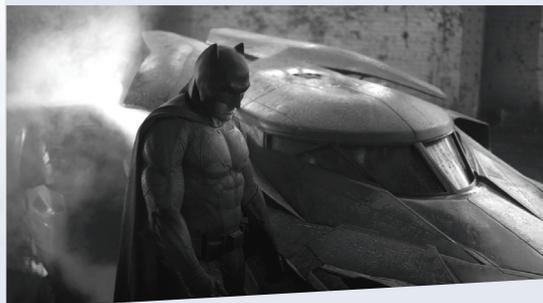
해낼 수 있었다. 타노스가 로키에게 줬던 치타우리 셉터에 박혀 있는 푸른색 보석은 코믹스의 '마인드 스톤'과 연결된다. 원더우먼의 탄생이 제우스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제우스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다이애나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근거로 그의 정체가 원더우먼이라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영화가 던져준 '떡밥'을 근거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추측하고, 더 즐거운 감상을 위해서는 코믹스 예습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획득한 아가모토의 눈은 앞서 언급한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플래시(에즈라 밀러) 등 '메타휴먼'이 등장하는 대목 역시 원작 코믹스를 아는 팬이라면 추후 '저스티스 리그'로 이어지는 세계관 확장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원작 코믹스와 영화는 얼마나 다를까?

기본 설정은 코믹스에서 따왔지만, 마블과 DC 모두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많은 부분이 각색됐다. 원작 코믹스의 아이언맨은 자신의 정체를 꽤 오랜 시간 숨기고 이것이 스토리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지만, 영화판에서는 '아이언맨'에서 바로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앞서 언급한 판권 문제로 코믹스에서는 긴밀한 관계에 있으나 영화판에서는 함께 한 모습을 볼 수 없기도 하다. 가령 스파이더맨과 데드풀의 독특한 관계는 코믹스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영화판에서는 각각 마블과 20세기폭스에 소속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같은 모습을 만날 수 없다. 성격 묘사에도 차이가 있다. 토르는 코믹스에 비해 영화판에서 보다 허술해서 가끔은 귀엽기도 한 모습을 보여준다.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에서는 성인이 된 로빈이 조커에게 죽고 나서 이후 더 이상의 로빈은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원작 코믹스에서는 총 3명의 로빈이 등장하고 이 중 두 번째 로빈이 조커에게 살해당한 설정이다. 1대 로빈은 성인이 된 이후 독립해서 나이트윙이라는 영웅이 된다(참고로 '레고 배트맨 무비'의 크리스 맥케이 감독이 이 설정을 토대로 한 영화를 연출하는 것을 워너브라더스와 논의한 바 있다). 아예 작중 배경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기도 한다. 원작 코믹스에서는 원더우먼의 어머니 히폴리타 여왕이 제2차 세계대전에 사절로 참여한다는 설정이지만, 영화 '원더우먼'에서는 원더우먼 본인이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직접 참여한다.

마블의 '스파이더맨(왼쪽)'과 DC의 '배트맨'.



5 마블 코믹스와 DC 유니버스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마블과 DC 캐릭터들에 관한 판권은 다른 스튜디오가 소유하고 있기에 원더우먼과 토르가 싸운다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를 근거로 어느 캐릭터의 힘이 더 세다거나 하는 논쟁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티어'는 히어로들의 힘의 세기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마블 티어', 'DC 티어', '마블 DC 티어' 등을 검색하면 일부 네티즌들이 히어로 간 우위를 점하며 자의적으로 만든 등급표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거의 의미가 없다. 작가나 감독에 따라 얼마든지 기본 설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에서는 거미줄이 몸에서 직접 나왔지만, 앤드류 가필드 주연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는 그가 직접 제작한 일명 '웹슈터'에서 거미줄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6 마블과 DC는 영화로 얼마나 벌었나?

그렇다면 마블과 DC는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영화로 각각 얼마나 높은 수익을 냈을까? 각각의 영화가 한 세계관으로 통합되는 MCU와 DCEU로 한정했을 때(가령 1990년대에 개봉했던 마이클 키튼 주연의 '배트맨' 시리즈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MCU는 총 117억 달러의 수익을, DC는 총 29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총수입에서는 MCU의 압승이지만, 의외로 편당 수익은 각각 7억 8000만 달러, 7억 3000만 달러로 거의 비슷하다. MCU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는 월드 와이드 수익 15억 달러를 돌파한 '어벤져스'이며,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약 14억 달러로 뒤를 잇고, 가장 아쉬운 성적을 거둔 작품은 2억 6000만 달러를 번 '인크레더블 헐크'다. DCEU의 경우 총 네 편의 영화 간 수익에 큰 차이가 없다.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 8억 7000만 달러, 현재 상영 중인 '원더우먼'이 6억 5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⑩